

“첨단기술로 인력난 해소”...해남군, 스마트 영농 메카 도약

10억 투입...자율주행·드론 등 보급
벼 직파 드론·자율주행 균평 기술도
기후 대응 스마트 관수 시스템 구축
노동력·경영비 등 절감...경쟁력 확보

해남군은 급속한 농촌 인력난과 고령화 파고를 넘기 위해 자율주행·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기계 보급에 나선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총 17곳에 10억 6천만원을 투입해 스마트 영농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해 지피에스(GPS) 기반 직진 자율주행장기 보급,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청년 농업인 노지 스마트 영농 기반 조성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드론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약 20ha 면적의 대규모 농지에 드론을 띄워 벼를 직접 파종해 전통적인 벼농



해남군 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해 벼 직파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사의 핵심인 고된 육묘와 이앙 작업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노동력은 무려 85%, 경영비는 83%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직파 재배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됐던 불완전한 균평 문제는 최신 자율주행 균평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정밀하고 오차 없는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아 노동 집약적인 밭농사 역시 첨단 기계화 중심으로 빠르게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오롯이 사람의 손에만 의존해 왔던 밭작물 파종·정식(모종 심기) 공정에 전용 기계를 전격 도입해 고질적인 노동력을 70%까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GPS 기반 자

율주행장치를 활용할 경우, 까다로운 로터리 작업이나 비닐 피복 시 소요되는 노동 시간을 42% 가량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농가들의 든든한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지 스마트 영농 기반 조성을 통해서도 작물의 전 생육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자동 관수 시스템을 전면 구축한다.

사람이 직접 물을 대는 재래식 방식에서 벗어나, 축적된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양 내 수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작물 성장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유지하는 정밀 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가뭄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물의 최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사업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급해 해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 시민사회, 6·3 지선 10대 의제 선언

노동·여성·청년 등 30개 단체 참여
시민 참여·보편적 공공복지 확대 등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20일 목포시민주권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시민이 시장이다’를 주제로 정책의제를 선언했다. <사진>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노동·여성·청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지역 30개 단체가 결집한 연대체다. 특정 정파를 떠나 오직 시민 주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헌법 원칙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제 지역사회와 일상의 정치로 온전히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연대 활동의 핵심 배경이다.

발표된 10대 의제는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설



계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삶 속에서 제안한 절박한 요구와 대안들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 ▲시정 감시와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제도화 ▲보편적 공공복지 확대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등이 대표적 과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망 구축, 성평등 행정 실현, 행정 투명성 강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속 목포 자치권 수호,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취약 계층 보호 등 구체적인 현안도 꼼꼼히 담았다.

단체는 의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0대 의제 정책협약식’을 추진할 방침이며, 당선 이후에도 제도적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정책 실현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목포시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목포의 시장은 시민이 만들고, 목포의 정책은 시민이 제안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의 권력을 지역에서 다시 확고히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군, 여름철 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합동점검

수문 개폐·전기설비 안전성 등 확인

강진군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를 막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핵심 재난 대응 시설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안전재난교통과·농어촌

개발과·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등이 참여해 펌프장 운영 상태와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배수펌프장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수문 개폐 상태, 전기설비 안전성, 비상발전기 운영 상태, 자동제어 시스템 이상 유무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사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에 나서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장산도 ‘섬 샹스타데이 축제’ 7천여명 방문

역사투어·주민 노래자랑 등 호응

신안군은 “최근 장산도 화이트정원에서 열린 ‘2026 섬 샹스타데이 축제’가 7천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섬 샹스타데이 축제는 장산도의 청정 자연과 하얀 꽃을 매개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알리는 특화 행사로, 올해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이 마련돼 시선을 모았다. <사진>

섬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장산역사투어’는 일찌감치 접수 조기 마감을 기록하며 인기를 누렸다. 섬과 꽃에 대한 퀴즈를 푸는 ‘데이지 골든 벨’,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웃고 즐길 ‘고무신 던



지기’와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색 체험 행사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축제 기간 열린 ‘장산 주민 노래자랑’은 각마을 대표들이 출전해 숨은 끼를 발산하며 화합과 단합의 장으로 선보였다. 이밖에 하얗게 물든 샹

스타데이가 절정을 이루며 초여름의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방문객들은 사진 촬영과 산책을 즐겼으며, 공식 축제 일정은 끝났지만 화이트정원은 계속 개방돼 활짝 핀 꽃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신안=양홍기

영암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군 합동...저수지 붕괴 등 대비

영암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진>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영암읍 회문리 대동제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태풍과 극한호우로 인해 대동제 제방이 붕괴하고 인근 건물이 매몰되는 등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토대로 진행됐다.

영암군과 7개 유관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해 재난 초기 대응부터 상황 전파·주민 대피·현장 통제·인명 구조·응급 복구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윤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극한 기상 상황이 찾아지는 만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는 안전의 핵심이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재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군, 해안·생활권 ‘도시숲’ 힐링공간 조성

손불·대동면 등 2곳 숲정원 탈바꿈

함평군은 일상 속 쾌적한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해안과 생활권을 아우르는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손불면 석창 해안 일원의 ‘복합산림경관숲’과 대동면 나비베스타운 인근의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을 최근 모두 완료하고 새로운 힐링공간으로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부족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해 군민들이 생활권과 해안 지역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심층 반영했다.

손불면 석창에는 해안환경에 맞춰 팽나무·해송·배롱나무 등 다채로운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을 풍성하게 연출했으며, 아울러 전망데크와 주차 공간을 깔끔하게 정비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사진>



대동면 나비베스타운 인근 유소년 야구부 전지훈련지 주변의 유휴공간은 생활밀착형 숲정원으로 탈바꿈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도시숲이 군민의 여가 공간이자 관광객의 훌륭한 관광 명소가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숲 확충과 철저한 사후 관리로 내실 있는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진도군, 고추 바이러스병 현장 진단 서비스

전용 키트 활용 신속 검거

진도군은 20일 “고추 생육기를 맞아 바이러스병 확산 차단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예작물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추 바이러스병은 주로 총채벌레나 진딧물 등 매개충에 의해 급속히 전염되며, 감염 시 잎이 오그라들고 수확량이 급감하는 등 품질 저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작물의 즙액을 이용해 불과 5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최신 진단 키트를 활용해 현장 농가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고 있다. <사진>



진도군 관계자는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이려면 선제적인 현장 예찰과 정확한 진단이 필수”라며 “재배 중 잎이 누렇게 변하는 등 의심 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 진단 서비스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도=박세원 기자